

#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보고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9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110호
- 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생명윤리정책센터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 목차

1. 행사 일정표 / 5
2. 특강 : “왜 생명교육인가?” (교수 맹광호) / 9
3.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수 최경석) / 33
4. 시범학교 운영 결과보고서 및 발표자료 / 49
  - (1) 백석중학교 (교사 문순단)
    - 운영 결과보고서
    - 발표 자료 (ppt)
  - (2) 성내중학교 (교사 정연옥)
    - 운영 결과보고서
    - 발표 자료 (ppt)
  - (3) 풍성중학교 (교사 강운숙)
    - 운영 결과보고서
    - 발표 자료 (ppt)
5. 생명윤리정책센터 및 전문도서관 소개 /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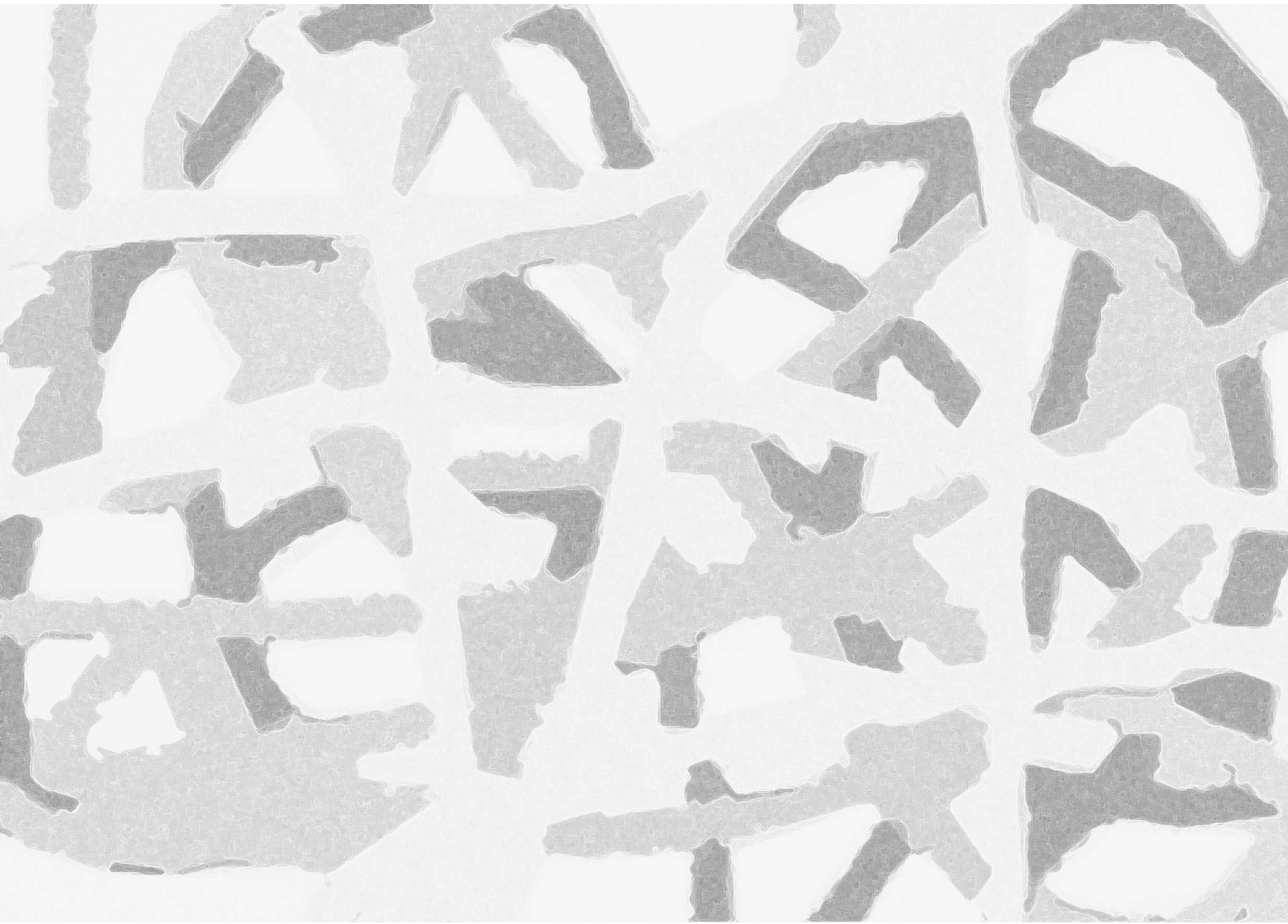
## 1. 행사일정표



시 간	내 용	담 당
13:30 ~ 14:10	등 록	
생명존중 담당교사 연수		
14:10	개회사	문 정 희 (업무담당 장학사)
14:10 ~ 15:00	‘왜 생명교육인가?’	맹 광 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생명윤리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15:00 ~ 15:05	국민의례	이 국 봉 (생명윤리정책센터 선임연구원)
15:05 ~ 15:10	보고회 개회사	장 영 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 센터장)
15:10 ~ 15:15	인사말씀	박 경 전 (풍성중학교 교장)
15:15 ~ 15:20	격 려 사	이 태 근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 과장)
15:20 ~ 15:50	프로그램 소개 및 강의	최 경 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5:50 ~ 16:35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 -백석중학교 -성내중학교 -풍성중학교	시범학교 운영 담당자 문 순 단 (백석중 교사) 정 연 옥 (성내중 교사) 강 윤 속 (풍성중 교사)
16:35 ~ 16:50	질의 및 응답	최 경 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성 자(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16:50 ~ 16:55	총 평	김 용 호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16:55	폐 회	







## 2. 특강-“왜 생명교육인가?”

연사: 현암(玄菴) 맹광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출생 : 1943년 2월 2일

□소속 :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명예교수

□학력 : 가톨릭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의학 석·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보건대학원 수학  
미국 하와이대학 보건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경력

■ 대학 : 가톨릭의대학장, 보건대학원원장 역임  
(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명예교수

■ 학회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회장 역임  
(현) 대한금연학회 회장

■ 정부자문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범국민금연운동본부 본부장, 금연사업지원단 단장,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등 역임  
(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 민간단체 : 한국학술지원재단 연구 운영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기획위원, 국립암센터이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사, 아산복지재단 의료자문위원, 등 역임  
(현) 금연운동협의회부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지역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한국과학문화진흥회 운영위원, 한국의사수필가 협회 회장, 등

■ 국제활동 :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 회장, 세계 가톨릭의과대학연맹 이사 등 역임. (현)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위원

■ 연구업적 : 논문-박사학위 논문 2편 외 170여 편, 저술-‘대학역학’ 등 10여 권, 기타-수필집 및 칼럼집 2권

■ 수상 : 국민훈장 동백장, 대통령표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인당의학교육 대상,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상

■ 저서 : 의학칼럼집 「건강가치 생명가치」  
수필집 「동전 한 개」 외 다수.



## 왜, 생명교육인가?

맹 광 호

가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 예방의학

## 발표 순서

- ◎ 생명경시 현상 – 죽음의 문화
- ◎ 왜, 이런 일이?
-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생명문화의 건설
- ◎ 생명교육의 중요성: 생명교육의 내용과 방법
- ◎ 맺음말

## 우리나라의 생명경시 현상들

-죽임의 문화, 죽음의 문화-

1.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7.2명 수준)
2.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비율 (가임 부인 1,000명당 낙태: 한국 30.7건, 미국 22건, 독일 7.6건, 네덜란드 6.5건)
3. 산업재해 비율 선진국의 1/5, 사망률은 5-10배
4. 자동차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OECD 국가 중 1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한국 1.4명, 영국 0.2명, 일본 0.3명)
5.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 및 음주 습관과 이로 인한 질병사망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실태)

## 주요 OECD 국가들에서의 자살 실태

자살률 상위	국가명	자살률	자살률 하위	국가명	자살률
1	대한민국('07)	24.0	1	그리스('06)	2.9
2	헝가리('05)	21.0	2	멕시코('05)	4.4
3	일본('06)	19.1	3	이탈리아('03)	5.5
4	핀란드('06)	18.0	4	영국('05)	6.0
5	프랑스('04)	14.6	5	스페인('05)	6.3

\*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 연령구조차이가 제거된 국제간 비교를 위해서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

\*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8 벨기에, 덴마크, 터키 제외



## 최신뉴스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IT/과학 | 스포츠 | 연예 | 칼럼

### [사설] 낙태 후진국 오명 벗어나야

중앙일보 | 기사전송 2008-04-25 00:50

[중앙일보] 우리나라는 낙태 문제에 관한 한 후진국이다. 한 해 신생아 수의 78%에 이르는 태중 생명이 세상 빛도 보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 지구상에서 불법 낙태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 언론들이 낙태 문제를 다룰 때 '불법 낙태의 천국'으로 지목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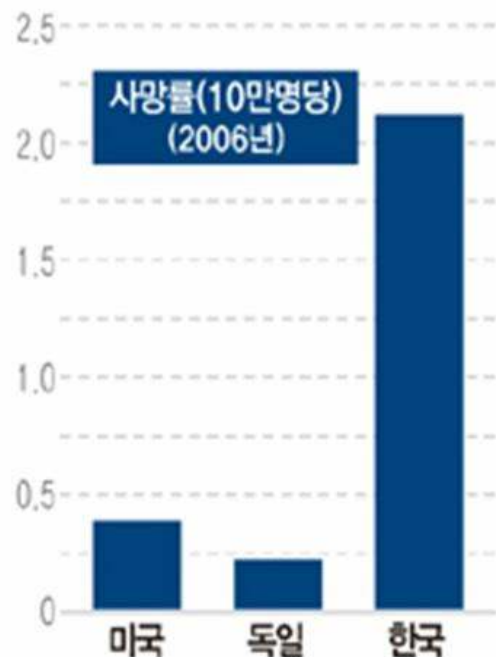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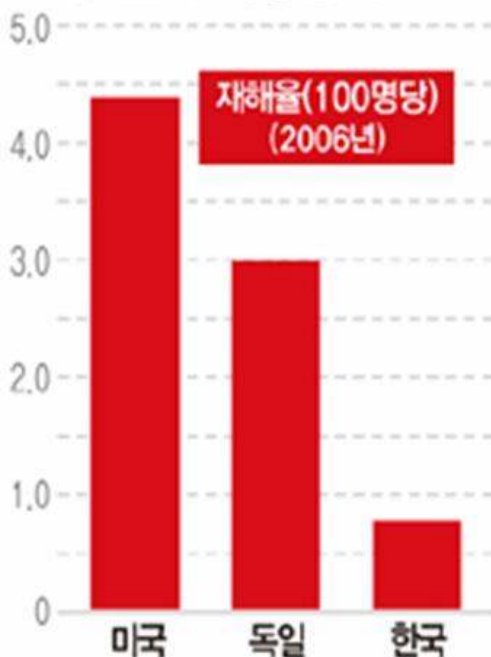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낙태 천국의 오명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압축성장의 그늘에서 자라난 도덕적 해이는 성 개방과 생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스트레스 해소용 즈음으로 여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중·고교생 8만 명을 설문조사 해 보니 5%가 성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 중 성관계 시 피임을 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청소년 상당수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의료계의 배금주의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인터넷에 비껴나 광고까지 띄워 불법 낙태 영업을 하는 산부인과가 부지기수다.

#### ▶재해율과 사망률 비교

(매경 이코노미, 2009. 9. 23.)

(단위:%)



술이 뭉기에...한국 年 사망자 13% 음주관련 질환 원인 | 건강 2008.06.07 14:02

스마일고

<http://blog.daum.net/crosstink/16210107> 복사

술이 뭉기에...한국 年 사망자 13% 음주관련 질환 원인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6.06 03:14

40대 남성, 울산지역 인기기사 |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

우리나라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관련 사망이 사라질 경우 국민 평균수명은 1.61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손매리·천성수 삼육대 보건관리학 교수팀이 5일 한국알코올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알코올 소비와 질병'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4만5511명 중 12.8%에 해당하는 3만1333명이 음주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 음주 관련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전체의 66.8%(2만940명)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간질환, 위 관련 질환, 암, 호흡기계 질환, 심근경색 등이 음주로 인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일보

2006년 07월 05일 007년



**비틀대는 젊음**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가 끊이지 않는 서울 신촌 클럽에는 술 취한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매일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대생들의 음주율과 빈도는 남학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학회(가) '제10회 음주예측을 위한 대학생 리더십 초급 워크숍'을 5일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한국음주문학연구소(KARP) 병원에서 개최한다.

### 여대생이 남자보다 더 마셔 절반이상, 먹었다하면 폭음

2005 대학생 음주실태 조사



**대안문화 찾기** '음주예측을 위한 대학생 리더십 초급 워크숍'을 준비하는 대학 자원봉사자들이 4월 상동학원 개회를 다짐하고 있다. 강우호 기자

# 대학생 5명중 1명 매일 술취해 산다

◇대학생 절반 이상이 폭음=대학생들의 지난해 음주에 산지대 분석 결과 5개 대학 재학생 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대학생 음주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신 한 달간 취한 날이 얼마나 되는가'는 질문에 124명이 '거의 매일'이라고 답해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 가운데 22.3%를 차지했다. 1주일에 3~4회였다. 대답은 6.6%, 1~2회라는 대답은 12.9%였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은 1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는 셈이다. 특히 여대생의 23.4%가 '거의 매일 취했다'고 대답. 남학생의 20.8%를 앞지렀다. '술을 마시는가'라는 항목에서도 여대생의 91.3%가 '확실히'고 대답. 91.9%를 기록한 남학생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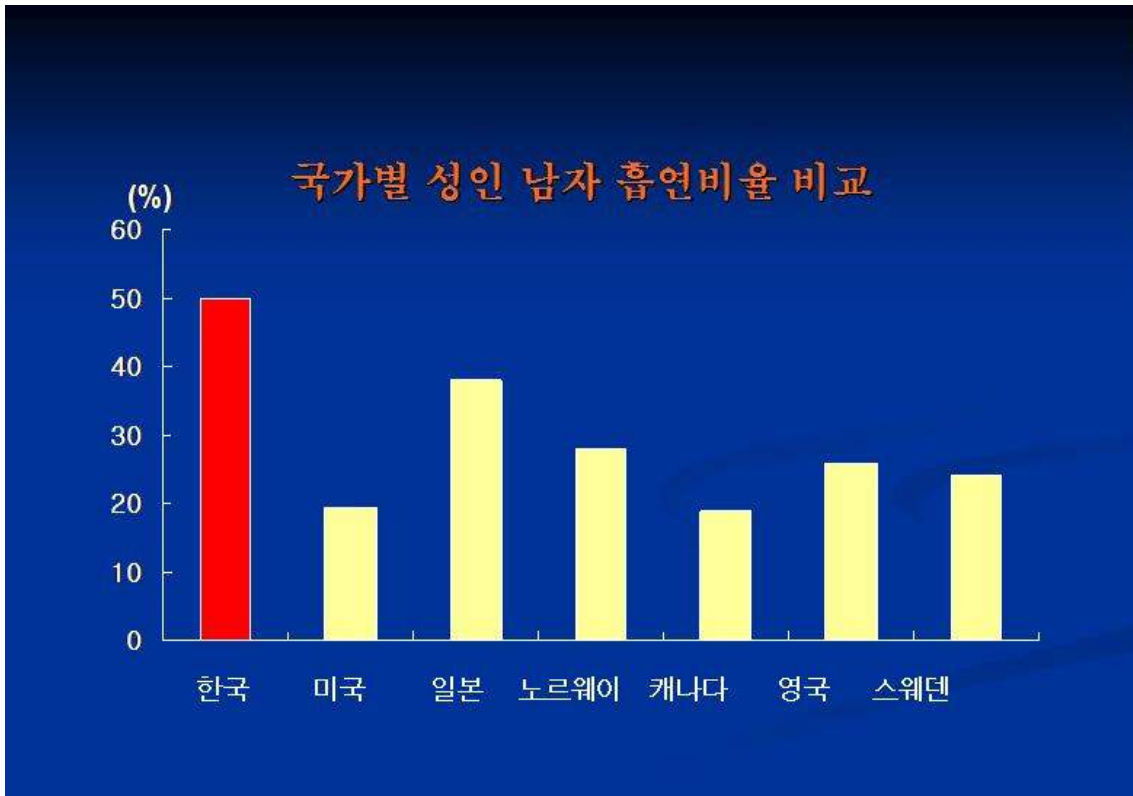
폭음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마시나?'라는 질문에 8천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5.6%, 7~6천은 14.8%, 5~6천은 15.3%였다. 폭음은 학계에서

한 자리에서 주부와 관계 없이 5천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로 규정된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교성 위해'가 49.2%, 1위인 차지했으며 '축하하기 위해'는 15.1%, '취미'인, 근심을 잊기 위해'라는 대답은 6.8%였다. 특히 '복합'이 될 일이 많아지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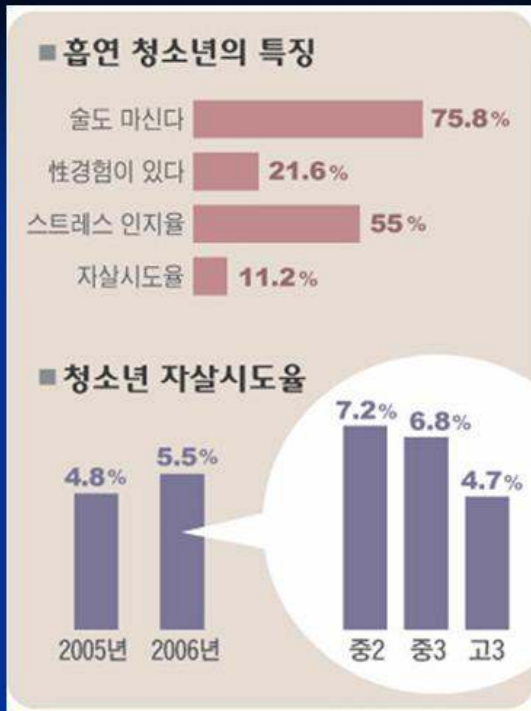
대학생 79명 합숙하며 술없는 놀이개발  
강권 음주문화 추방 전국 대학에 확산

한 음주예측을 위한 대학생 리더십 초급 워크숍'을 준비하는 대학 자원봉사자들이 4월 상동학원 개회를 다짐하고 있다. 강우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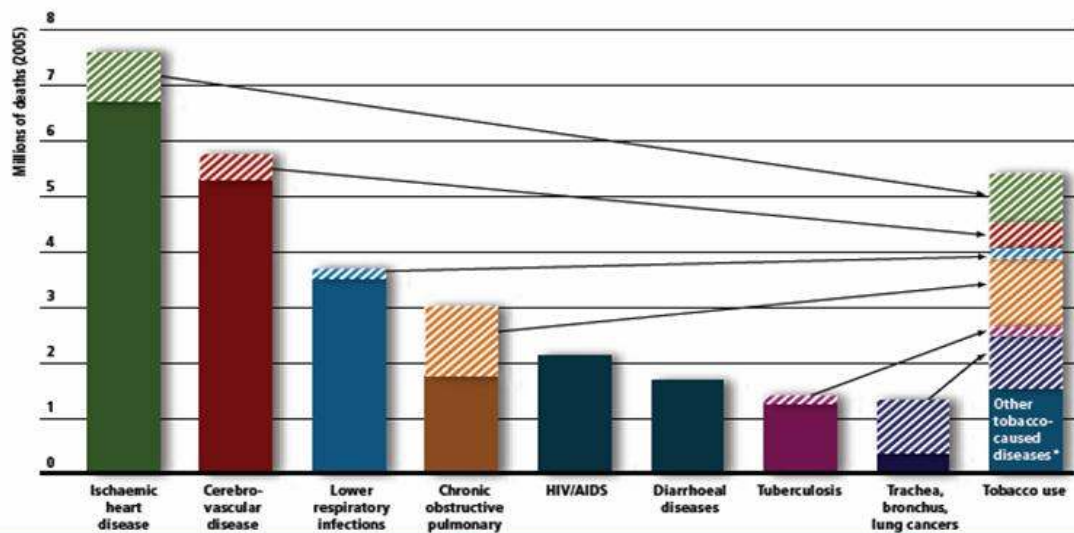
**청소년 흡연은 비행의 시작!**

질병관리본부

질병 별 사망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 % 및 흡연관련 사망자수, 한국 성인남자, 1985

질 병 명	추정 사망자수	비교 위험도	인구기여 위험도 %	흡연관련 사망자수
전체사인	127,808	1.28	16.60	21,216
악성 신생물 전 부위	22,816	1.65	31.61	6,896
구강, 인후 암	209	4.58	71.79	150
식도암	823	2.08	43.44	358
위암	8,928	1.47	25.05	2,236
간암	6,156	1.65	31.61	1,946
췌장암	514	1.49	25.84	133
후두암	407	20.33	93.22	379
폐 및 기관지 암	2,640	4.13	69.00	1,822
방광암	224	1.64	31.27	70
뇌혈관질환	17,767	1.26	15.60	2,772
고혈압성심질환	358	1.69	32.91	118
허혈성 심 질환	1,074	1.71	33.54	360
기관지염, 기타 호흡기질환	4,825	1.31	18.06	871
위, 십이지장궤양	926	2.07	43.21	400
진폐증, 기관지확장증	176	2.22	46.45	82

## TOBACCO USE IS A RISK FACTOR FOR SIX OF THE EIGHT LEADING CAUSES OF DEATH IN THE WORLD



##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 개인의 문제

- 존재론적 사유와 성찰 부족. 즉,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인문학적 물음과 해법을 찾는 노력의 부족
- 인체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

### 사회의 문제

- 외적 가치(돈, 명예, 권력) 지향적 사회
-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확대와 신 자유주의 사상



## 어떻게 할 것인가?

### - 원인적 대응 -

- 존재론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생명이해 교육: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 ‘Number One’ 보다는 ‘Only One’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이를 위한 입시, 채용제도의 개선과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의 정착

## 바람직한 생명교육: 교육내용

- 인체의 신비, 특히 생명 탄생의 신비
- 건강가치, 생명가치의 중요성
- 값진 삶에 대하여

## 왜, 인체의 신비 교육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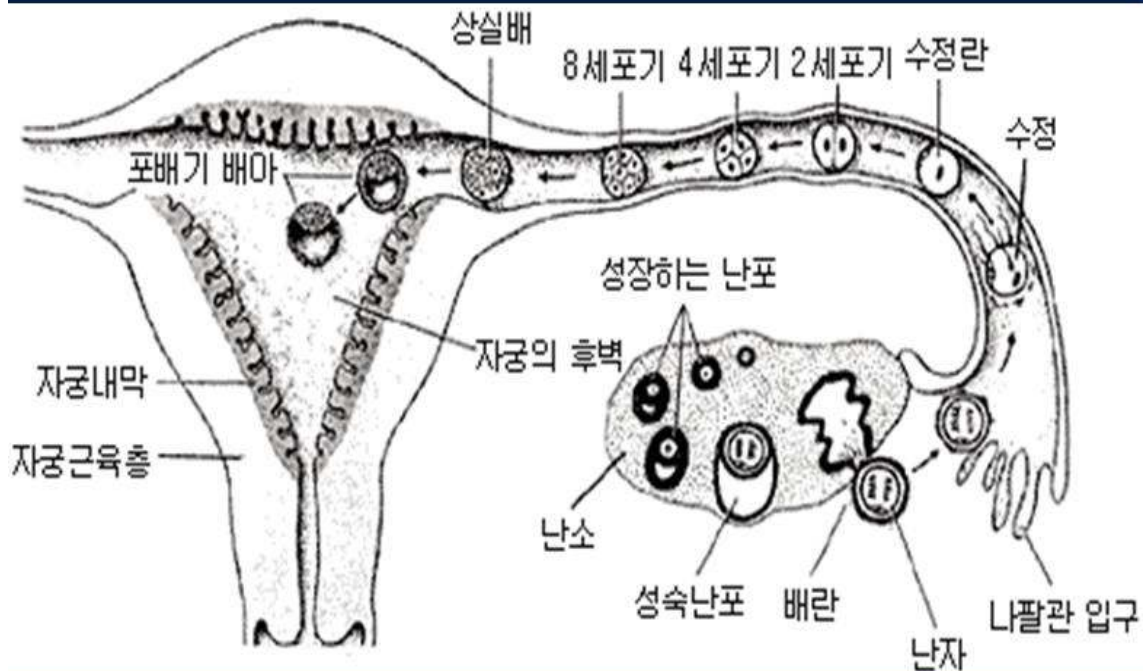
“인간의 육체적 기능이나 정신적 과정을 더욱 깊게 알게 되면 우리들 자신의 일에 관해서 더욱 더 올바르고 넓은 견해가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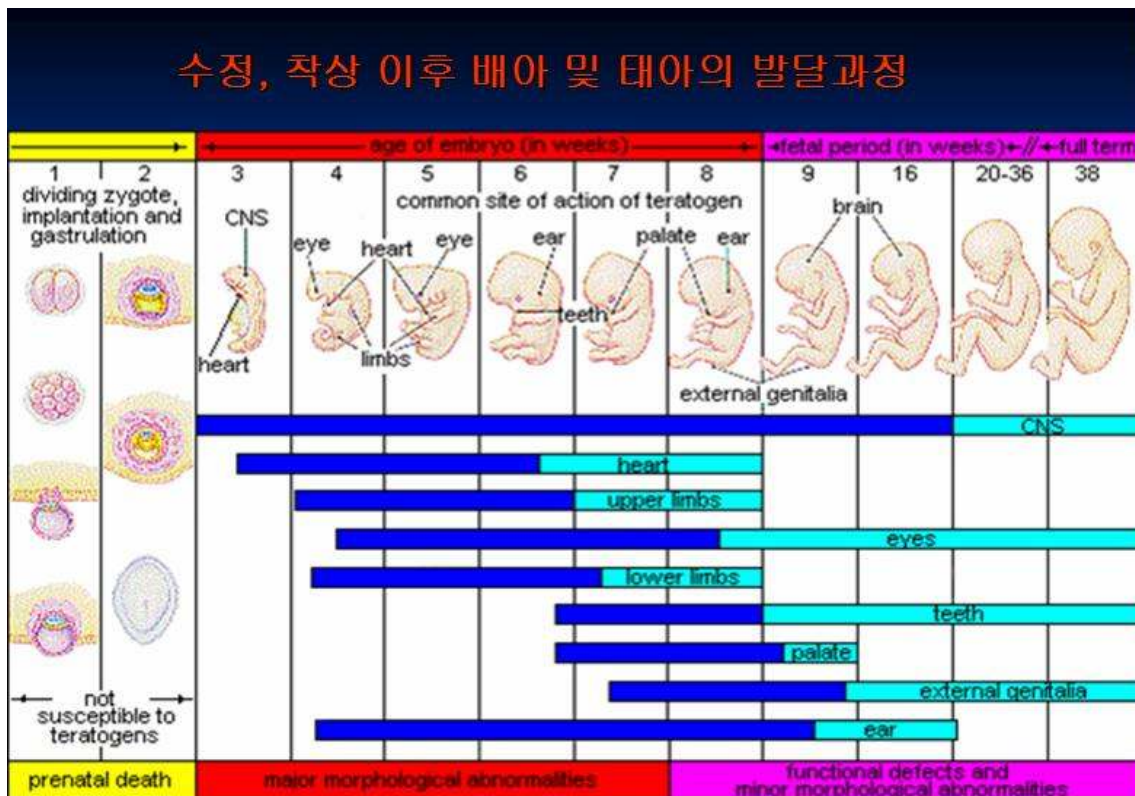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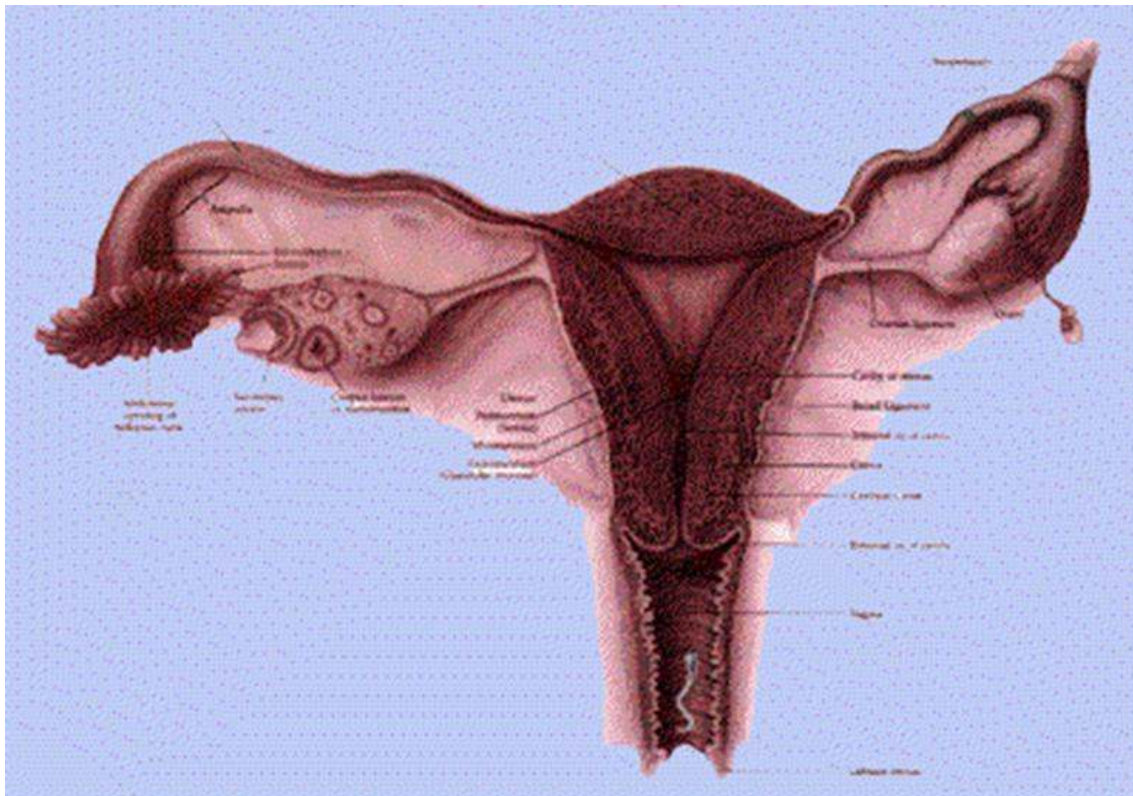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의 <<생물학적 인간관>>

“인체의 구조 기능이란 일찍이 설명된 바도 없고 장래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을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알렉시스 카렐(1873-1944) <인간, 알 수 없는 존재, Man, the Unknown>

## 인간생명 탄생의 신비-수정에서 착상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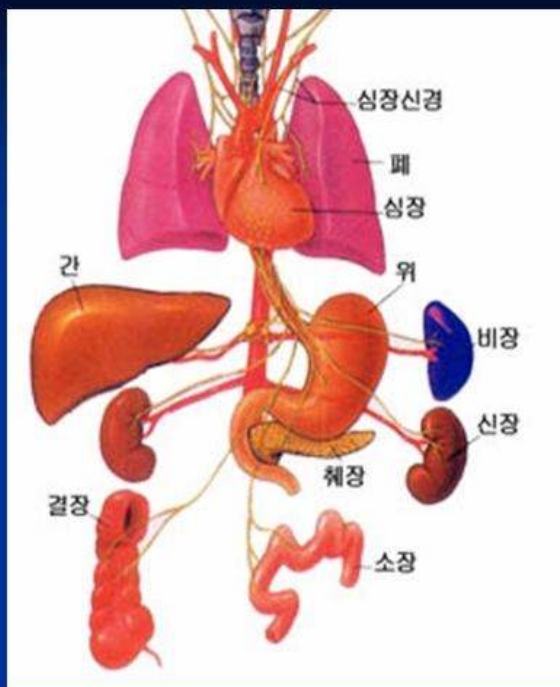








임신 10주된 태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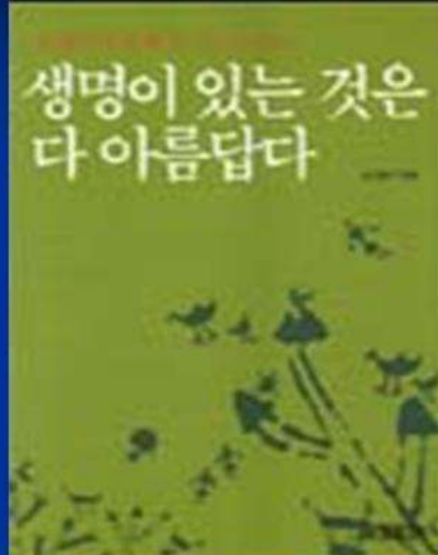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 인체 장기들

이들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야 한다.

특히 흡연과 지나친 음  
주는 장기간에 걸친 치  
명적 자살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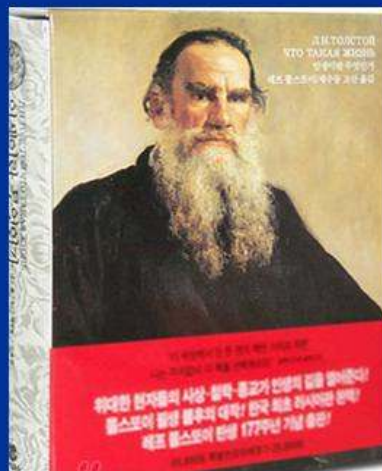


생명을 아름답게 보는 눈!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아름답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혹은 느껴지는  
아주 값진 경험이다.”

최재천

생명교육은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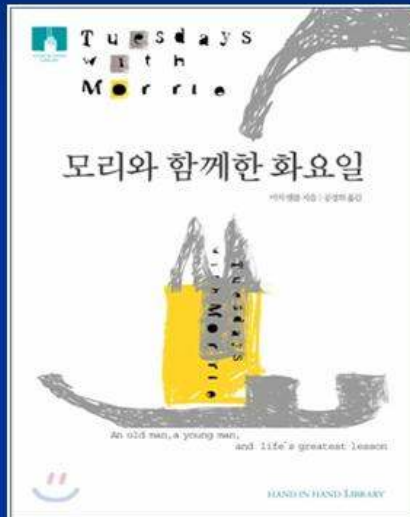
“모든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자기 생명의  
의미, 즉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참으로 간단하여 지능이  
낮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

레프 톨스토이(1828-1910)

〈인생이란 무엇인가?〉

부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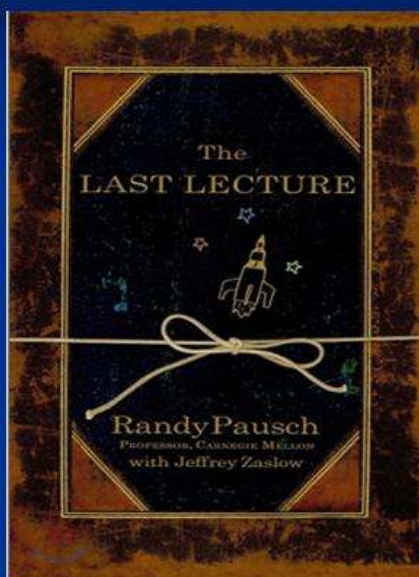
## 모리 슈워츠(1916-1995)교수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사실 그런 것 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네.  
자내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뭔지 아니?"

"뭐죠?"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



## 랜디 포시(1960-2008) <마지막 강의>

미국 카네기 멜런대학 교수.  
말기 췌장암으로 2008년 7월,  
48세 나이에 사망. 죽기 전 대학  
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킴.  
그의 고별강의를 담은 책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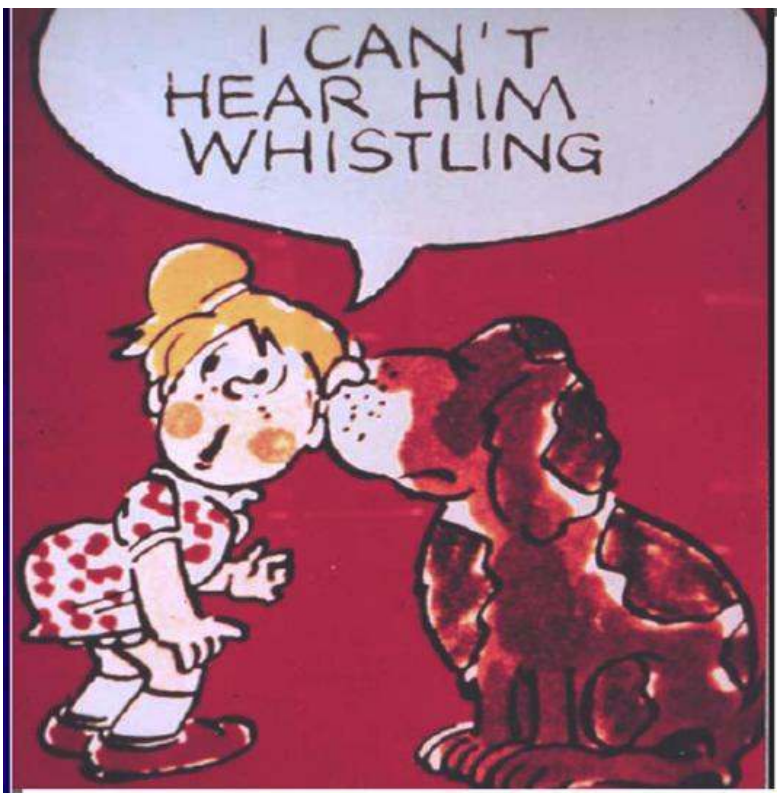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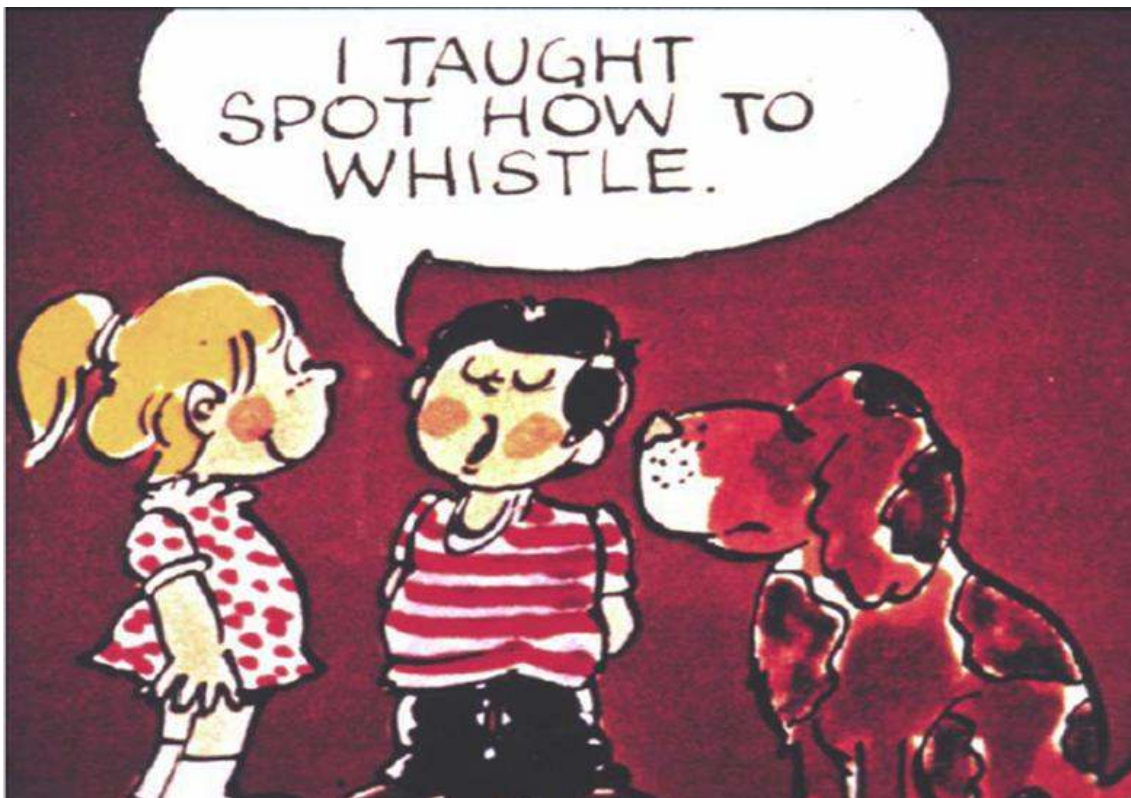
값진 삶을 사는 방법.  
정말 행복한 삶은 바로 '이 순간'.  
정직한 삶, 열정적인 삶, 남을 돕  
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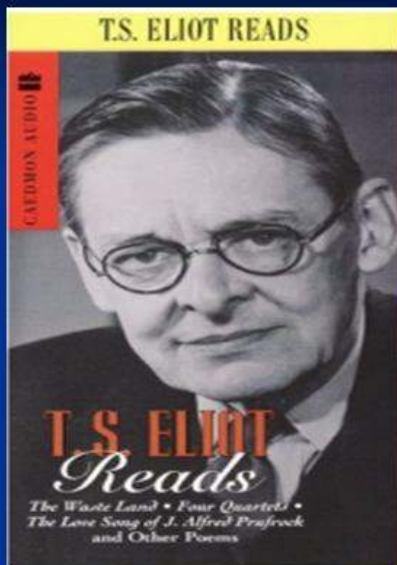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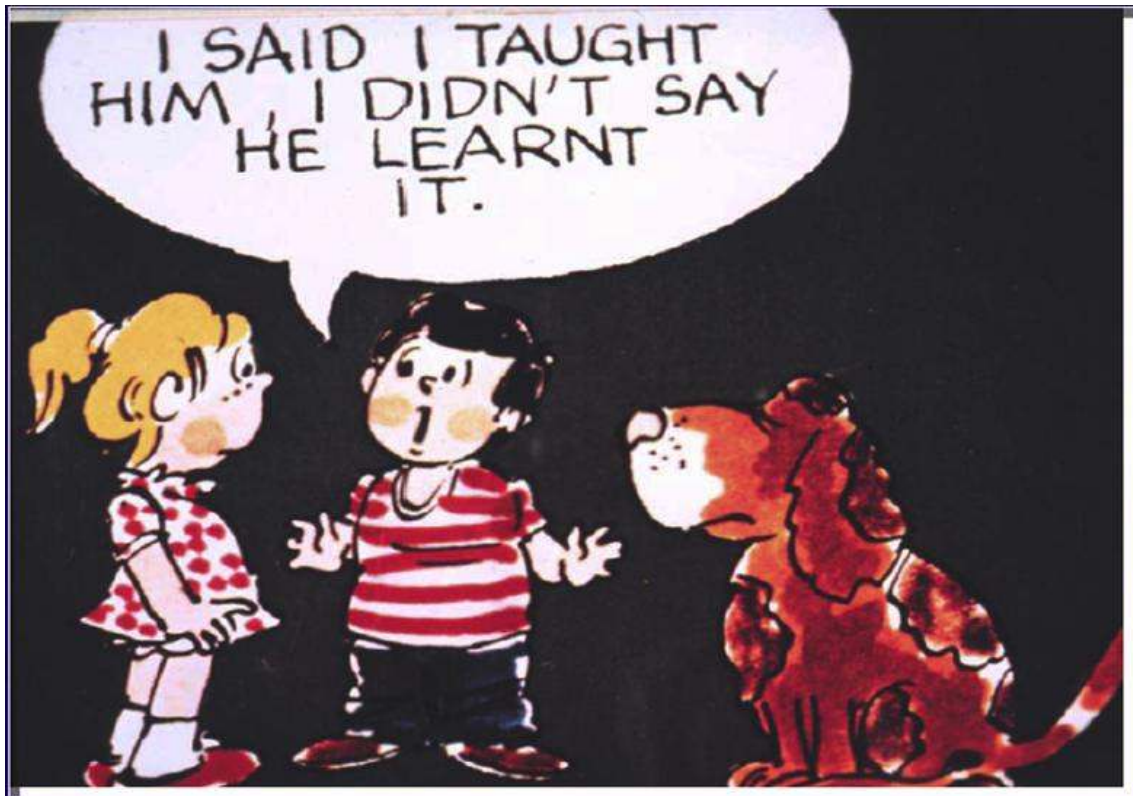
## 가치교육으로서의 생명교육: 교육방법

- 강의보다는 토론과 독서 및 체험 학습이 중요. 생명교육은 존재의 본성이다. 그것은 외적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지평, 즉 존재론적 사유를 통해 깨우쳐 진다.
- 역할 모델: 학생들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인지를 역할 모델을 통해 배우게 된다. 실제로, 가치교육 성과는 그 학교에 몇 명의 역할모델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T. S. Eliot (1888-1965)

### 독서교육의 중요성!

“우리는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는다”

*(We read many books  
Because we cannot know  
enough people”*

— T S 엘리엇(1948)

## 생명교육에 있어서 역할모델의 중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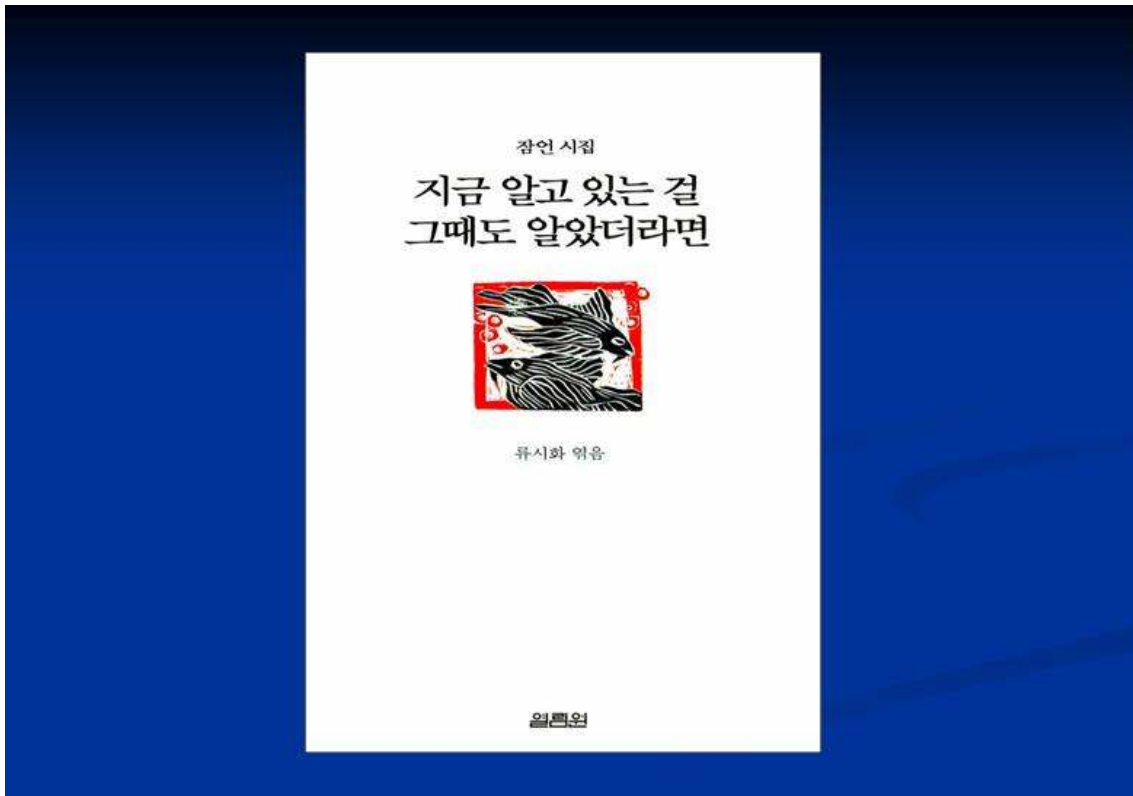
- 인문분야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
- 근거에 대한 확신(보고 믿음): 가장 중요한 학습원리
- 우리 사회에 생명문화를 위한 역할모델이 얼마나 많은가?

## 맺음말

---

- 진정한 생명교육은 반생명적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를 촉진하는 일이다.
- 생명교육은 존재론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이다.











### 3.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강의

강사: 최경석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 교수)



**발표자 : 이화여자대학교 최경석**  
**2009년 11월 4일 수요일**

## **생명윤리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구 지원**

-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사업단의 지원으로
-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0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 본 발표회 및 교사 연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음.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윤리적 이슈들의 증가 현상 초래
- 생명 경시 현상 및 인간 소외 현상 심화
- 자살·폭력·낙태 현상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생명 존엄 의식 약화 우려
-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들에 대한 파급 효과 우려
- 생명윤리 교육을 통한 인간 존중 및 생명윤리 의식 강화 필요성 대두

## 2. 연구 목적

- 생명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생명 존중 의식 고취하고 생명윤리 의식 함양
- 중등교육과정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학교에 적용·운영하여 적합한 적용 방안 마련
- 생명윤리 교육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각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여
- 생명윤리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



### 3.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내용

- 중등학교용 생명윤리 교육의 내용·범위·방법 및 목표 설정
-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중학교용 교재 개발
-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및 학습 자료 제작
-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방안 연구
-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조직 및 교육지원 활동

### 4. 생명윤리 교육 시범학교 운영

서울시 3개 시범학교 선정

**생명윤리 교육의 3가지 운영 모델 수립**

백석중

• 교과활동+창의적 재량활동+특별활동

성내중

• 창의적 재량활동+특별활동

풍성중

• 교과활동

## 5.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생명윤리 교육 주제를 15개 추출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
- 교육 자료로 <교사용>, <학생용>, <사례집>을 개발
- 생명윤리 교육 수업 모형 개발 및 교수-학습 자료 제시
-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인터넷 카페 운영, 교사와 연구자 모임, 전문가 파견 강의 지원, 자문위원 구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

## 6. 생명윤리 교육 내용 선정

### 생명윤리 교육 주제

1. 인공 수정	9. 동물 실험의 원칙
2. 올바른 성과 낙태 예방	10. 인간 대상 연구
3. 죽음의 의미 : 뇌사 및 안락사	11.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
4. 폭력 예방 및 대책	12. 유전자 검사와 치료
5. 자살의 원인과 대책	13. 생명윤리의 정의와 원칙
6. 인간 복제	14. 연구 윤리
7. 장기 이식	15. 생태 윤리와 환경 윤리
8. 줄기 세포	

## 7. 생명윤리 주제별 구성 특성 및 활용

- 주제별 단위 구성으로 필요한 단원을 선별 이용 가능하고 순차적 진행이 필요하지 않음
- 단위별 학습 목표, 단위 개요, 지도사항 수록하였고 각 단원은 5-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
- 도입 + 본론(과학적+윤리적+법적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제적 연구방식 도입) + 사례로 구성하여 실생활에 연계시킴
- <생각해보기>, <토론해보기>, <발표해보기>, <사례보기>, <조사해보기>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제시하였고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 모두 활용 가능

## 8. 생명윤리 교재 지도상의 유의점

- 중학생용 교재로서 학년의 구분은 없고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 각 주제별 단원은 3-4차시 분량이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 사용 가능
- 팀티칭 교수 활동, 다른 교과목 교사 간의 협동 연구 활동을 통해 과학, 윤리, 법에 관한 통합 이해와 적용 필요
- 다양한 학생 활동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주도적 활동 시간이 되도록 지도



## 9. 생명윤리 지도상의 유의점

- 생명윤리,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의 구분
- 가치관 교육 : 생명윤리 교육 (생명존중, 인권존중 등의 보편적 가치교육)
-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을 통한 가치판단 능력 신장 : 생명윤리학 교육 (학제적 통합교육으로서의 역할)
- 다원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책적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소양 교육 : 생명윤리정책 교육 (상호존중 및 민주시민의 덕목 함양)

## 10. 생명윤리 교육 교재 보기

### 2. 올바른 성과 낙태 예방 [교사용]

#### ■ 학습목표

-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문화를 알 수 있다.
- 낙태의 주요 원인들과 예방 대책을 말할 수 있다.
- 낙태에 관련된 윤리적, 법적 논쟁점들을 설명할 수 있다.

#### ■ 단원개요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격변기의 시기이고 특히 성적인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므로 올바른 이성관과 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바르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낙태율이 아주 높은 수준이며 특히 미혼 여성과 청소년의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를 하는 이유들은 다양하나 단순히 피임의 한 방법으로 여기거나 가족계획의 조절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낙태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낙태 수술의 방법으로는 진공 흡입술, 소파 수술법, 약물 사용법, 자궁 절개법 등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낙태는 윤리적으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살인행위와 같다고 여기고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달리 낙태 찬성론자들은 태아를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태아의 생존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지도사항

- ▶ 청소년 시기는 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므로 성에 대해 수치스러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 잡아 주도록 한다. 또한 이성교제를 숨기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친구나 어른들에게 상담을 권유하여 건전하지 못한 교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준다.
- ▶ 낙태를 하게 되는 이유와 낙태의 현실, 낙태 수술의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낙태에 대한 오개념이나 선입견을 파악하여 교정해 준다. 또한 낙태는 가족계획을 위한 조절 수단이 아니며 피임의 한 방법도 아님을 반드시 인식시켜 준다.
- ▶ 낙태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꼭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과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윤리적 논쟁들을 소개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낙태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임을 인식시키고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 주도록 지도 한다.

■ 들어가며

▶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문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충동적인 행위로 뒷날 후회하는 일을 남기지 않도록 진지하게 설명해 준다.

1.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면에서나 신체적인 면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성적인 변화를 통해 점차 성숙해져 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리게 된다. 이 정보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그 영향들은 그대로 심리적, 신체적인 성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인 이성 교제에 대한 큰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올바르지 못한 이성교제는 남은 생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하고 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낙태율은 청소년들의 성문란의 심각성과 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 본 교재에서는 낙태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낙태’로 사용하도록 한다.

☞ 낙태율: 2005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36만 건가량 낙태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기존 여성 20만 3천건, 미혼 여성 14만 7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낙태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미혼 여성의 낙태율과 청소년의 낙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낙태율을 감소시킬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낙태율의 증가와 감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과정이다.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은 분명 큰 기쁨의 과정이고 축복의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낙태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미혼 여성의 낙태율과 청소년의 낙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낙태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는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임신부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낙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혹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낙태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낙태를 마치 가족계획의 조절 수단으로 즉, 낙태를 단순히 피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되어 임신과 출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더욱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이 야기되고 있어, 낙태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생각해 보기 ♠**

1. 청소년기에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

▶나의 생각 :

---



---



---



---

■ **학생활동**

☞ 사례를 읽고 각 토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발표해 보게 한다.

**♠ 토론해 보기 ♠**

**<사례>** 같은 반 친구인 민수(남학생)와 정희(여학생)는 서로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어느 날 중등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 후 2달 뒤 정희는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

1. 이런 상황에서 민수와 정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희의 입장	민수의 입장

2. 정희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정희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생각 :

---



---



---



---

3.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아기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출처 : <http://cfs15.tistory.com>>

---

---

---

---

---

---

4. 청소년기의 임신과 낙태의 예방책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 내용 :

---

---

---

---

### ■ 과학적 이해

낙태 수술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낙태 수술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꼭 인식시켜 준다.

## 3. 낙태 수술의 방법

① **진공 흡입술** 진공 흡입기를 자궁 내에 삽입한 뒤 태아의 몸을 빨아들인다. 진공 흡입이 끝난 후에는 자궁 안쪽 벽을 긁어내어 태반 조직을 제거한다. 이 때 사용하는 흡입력은 가정용 청소기보다 29배나 강하다고 한다.

② **소파 수술법** 임신 12주경에 자궁 입구를 벌려서 태아의 몸을 조각내고 그 부서진 조각들을 꺼낸다. 태반 등 남은 산물을 꺼내기 위해 자궁벽을 긁어낸다. 이 때 출혈이 아주 심하다.

③ **약물 사용법** 약물을 자궁에 주입하여 자궁을 수축시켜서 태아를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임신 13주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격렬한 산통을 일으켜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유산시키는 작용을 하게 한다.

④ **자궁 절개법** 임신 후기에 사용하는 자궁 절개법은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한 후 태아와 태반을 꺼내서 버리는 방법이다. 자궁 절개법은 제왕절개 수술과 유사하다.



♠ 읽어 보기

< 낙태 시술의 후유증과 부작용 >

낙태 시술 후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정신과 의사 김우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태를 한 여성들은 죄책감과 분노, 적개심 등으로 낙태 후 적응장애, 우울증 뿐만 아니라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불안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또한 ‘낙태후유증과 치료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박성철(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낙태 합병증으로 과다 출혈, 자궁내막염 및 복막염, 골반염이 있을 수 있고 낙태 후 임신에서도 자연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 출산, 영구 불임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수술시 생긴 감염이 심각한 경우 패혈증, 세균성 쇼크, 급성 신부전증을 초래해 심하면 산모가 사망할 수도 있다”

4. 인간 존재의 시작점과 낙태

대 인간 존재의 시작점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있음을 소개하고 그 합의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여성에게 임신은 정신과 신체의 모든 기능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며, 낙태의 후유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낙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시행하는 시술이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 태아로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인간 존재로서의 시작점을 어느 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은 아주 팽팽하다. 인간 존재의 시작점에 대한 다음의 5가지 학설을 살펴보고 그 합의점을 생각해 보자.

- ① 수정란설 : 수정란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 ② 원시선설 :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14일경이 되면 장차 뇌와 척수가 될 부분(원시선)이 생기는데 이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 ③ 착상설 : 수정란은 약 7일째 자궁 내막에 도착해 착상을 시작하여 14일 정도에 착상이 완료되는데 이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 ④ 뇌기능설 : 뇌기능설은 뇌간(간뇌, 중뇌, 연수)의 기능이 시작되는 수정 후 약 60일경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
- ⑤ 체외 생존 가능성설 : 체외 생존 가능성설은 모체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 존재의 시점을 정의하자는 설이다.

♠ 발표해 보기

1. 사람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 보고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생각해 보자.

▶ 토의 내용 : \_\_\_\_\_  
 \_\_\_\_\_  
 \_\_\_\_\_

## ■ 윤리적이해

태아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과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윤리적 논쟁들을 소개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5.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쟁

### ① 낙태 반대론

- ①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다. -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말해 주고 있듯이, 태아도 엄연히 인간 존재이므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 ② 낙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확산시킨다. -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태아를 죽인다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 생활에 방해가 되므로 죽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 된다.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회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노인 등과 같은 사람들의 생명 또한 경시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 ③ 낙태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윤리를 타락시킨다. - 낙태를 하게 되는 사람들 중 불륜과 같은 비합법적 이성 관계에 있거나 미혼 여성인 경우가 많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성적 문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의 가치와 의미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이성 관계로 인해 가족 관계를 해칠 수 있고 심하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
- ④ 낙태는 당사자인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 낙태로 인해 약 10~15%의 여성이 각종 후유증을 앓게 된다. 특히 낙태는 여성에게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무고한 태아를 죽였다는 자책감과 같은 죄책감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 ② 낙태 찬성론

- ① 태아는 성인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춘 “인간” 인가? - 수정란이 어느 시점에서 인간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점은 없다. 만약 태아가 성인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낙태는 경우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②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 만약 강간을 당해서 임신이 되었다면 이 여성은 그 임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것이며 그 산물인 태아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여성이 갖는 “신체의 자율권”은 임신을 할 것인지, 낙태를 할 것인지, 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이다 - 낙태로 인해 여성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심리적 고통보다도 임신과 출산으로 겪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이 산모와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사회적인 영향은 아주 크며, 만약 미혼모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 ④ 태아 자신과 공공의 복리에 대한 물음이다 - 태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미혼모, 근친, 혹은 강간에 의한 임신을 통해 출생하게 된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태어나지 않은 상태와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우 큰 충격과 불행을 겪으리라는 사실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 토론해 보기

1. 사회자를 한 명 정하고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각각 5명씩 선발하여 토의를 해 보자. 찬성과 반대의 근거와 함께 주장을 펼쳐 보자.

낙태 반대론 주장	낙태 찬성론 주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기억해 두기

< 낙태 예방 대책 >

- 낙태는 예방 가능함을 인식
- 낙태 전 상담과 숙려 제도
- 여성 인권 향상
- 올바른 피임법과 가족계획 수립
- 미혼 남녀에 대한 적극적인 성교육
- 의료인들의 낙태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성 인식
- 의료인들의 낙태 시술 자체의 무더짐에 대한 심각성 인식

■ 법적 이해

## 6. 낙태에 대한 법적 쟁점

**㉑ 낙태 금지법 <형법>**

낙태에 대해 우리 법은 금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에 의해 낙태한 자는 처벌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㉒ 낙태 허용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의사에 의한 시술,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와 몇 가지 정당화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임신할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한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자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간에 임신된 경우

◆인공임신중절과 낙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낙태 행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낙태의 개념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개념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 학생 활동

☞ 사례를 흥미진진하게 읽고 토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후 개별 발표와 모둠별 발표를 해 보게 한다.

♣ 사례 보기

< 로 대 웨이드 사건 : 1973년 >

로 vs 웨이드,,, 누가 이겼을까?

1973년 미국의 텍사스 주에 살고 있던 “제인 로”라는 여성과 지방검사인 “웨이드” 사이에 있었던 낙태에 관한 법정 공방 사건이다. “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원했지만 사건이 시작될 무렵 텍사스 주는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로는 이와 같은 법령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연방법원은 프라이버시권에는 낙태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여 로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각 주에서는 체외생존가능성이 발생한 이후의 낙태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체외생존가능성이 발생하기 이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연방법원은 규정하였다.

<출처: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 김장한, 이재담 역자>

♣ 토론회 보기

1. 위의 사례를 읽고 로의 입장에서 낙태를 하게 된 이유를 추측하여 말해 보고, 웨이드 판사의 입장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각각 말해 보자.

2. 위의 사례에서 미국의 연방법원은 낙태할 권리를 프라이버시권 안에 포함 시켰다. 프라이버시권의 항목에 포함시키면 좋은 것들을 팀을 이루어 작성해 보고 팀별로 발표해 보자.

■ 학생 활동

☞ 역할 놀이에서는 학생들이 사례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역할 놀이

< 솔로몬의 재판 >

엄마 와 아기,,, 누구를 살릴 것인가?

1989년 20대의 낸시 클라인은 임신 초기에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담당 의사들은 낙태를 희망했다. 낙태를 하면 그녀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녀가 복용해야 했던 약물 중 몇 가지는 태아에게 손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임신 상태에서는 투여할 수 없었다. 또한 그녀가 임신 상태를 벗어나면 대뇌 혈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이 그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낸시 클라인의 남편 마틴 클라인은 낙태를 요구했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그녀의 낙태를 막기 위해 법원으로 갔다.

<출처: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 김장한, 이재담 역자>

♣ 위의 글을 읽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각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 토의 내용 :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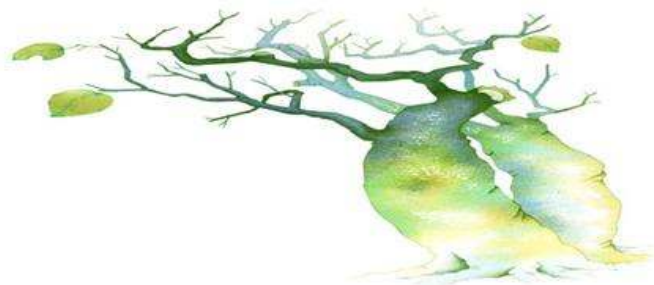
♣ 위의 내용을 극본으로 바꾸어 역할극 놀이를 해보자. 각각 배역을 정한 후 각 인물의 특성을 재구성해 보자.

- 낸시 클라인 : \_\_\_\_\_
- 마틴 클라인 : \_\_\_\_\_
- 낙태 반대론자(여러명) : \_\_\_\_\_
- 변호사(2명) : \_\_\_\_\_
- 판사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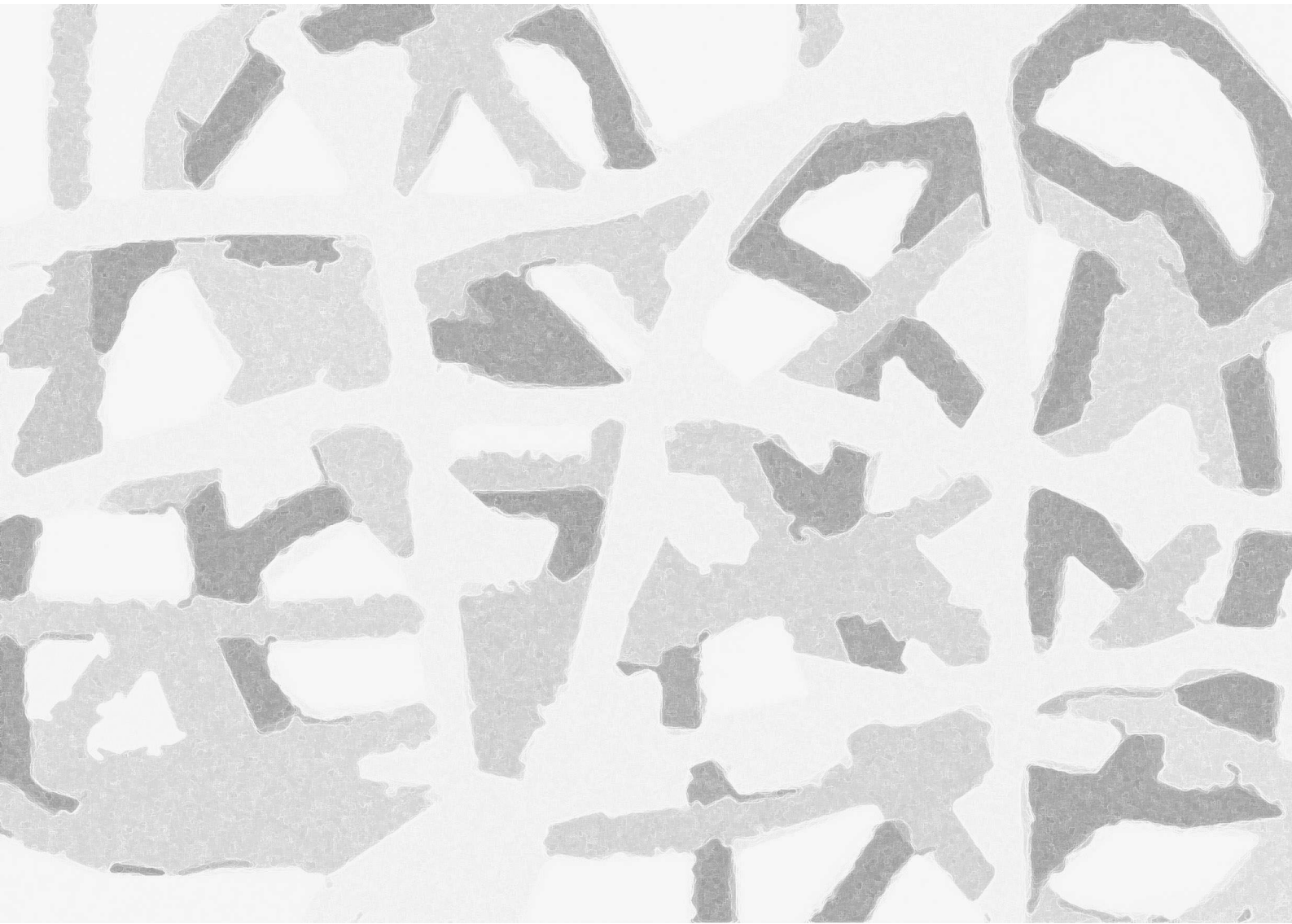
## 11.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현장의 생명윤리 교육 정착화로 청소년들의 생명윤리 의식 및 비판적 사고능력 함양
-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생명윤리적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
- 생명존중 의식의 확산으로 자살·폭력·낙태 예방에 크게 기여
- 생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다각도의 총체적 연구 진행으로 사회 전반적인 윤리 의식 수준 향상 및 가치관 형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석 choiks@ewha.ac.kr**







## 5. 생명윤리정책 센터 및 전문도서관 소개





## 생명윤리정책 센터 소개 [ <http://www.bprc.re.kr/>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유전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질병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과학연구는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였고, 배아가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전자 치료는 과연 안전한지 묻게 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과학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규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세계각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생명윤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센터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 연구가 수행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 **장명민**

### 커뮤니케이션 포털로서의 사회적 역할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이용안내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은 생명윤리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내 주요 학회지, 단행본, proceedings(학술대회발표집), 영상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1. 자료 내용

종 류	장서량	내 용
단행본	3200여 종	생명윤리 관련 전문 단행본 수집 및 소장
논문	3400여 건	국내 주요 학회지 및 학술 DB 검색을 통한 논문 수집 및 소장
연구보고서	300여 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수집 및 소장
연구지침	500여 건	각종 가이드라인 수집
법령	450여 건	생명윤리 관련 법령 수집
선언	78 건	국제 규범 및 서약 등 수집
영상자료	300여 건	영화, 시사프로그램 등 생명윤리관련 영상자료 수집 및 소장

### 2. 자료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

권 수	기 간
1회 5책	1주일

### 3. 연체료 및 복사비용

연체료	복사비용
1일 100원	A4장당 50원

### 4. 도서관 운영 시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오전 9:30 ~ 오후 5:30	휴관

### 5. 논문 복사 및 우편대출 서비스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에서는 본 도서관에 소장중인 논문에 한하여 원하시는 논문을 복사하여 이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행본과 영상 자료를 최대 5개까지 우편으로 대출해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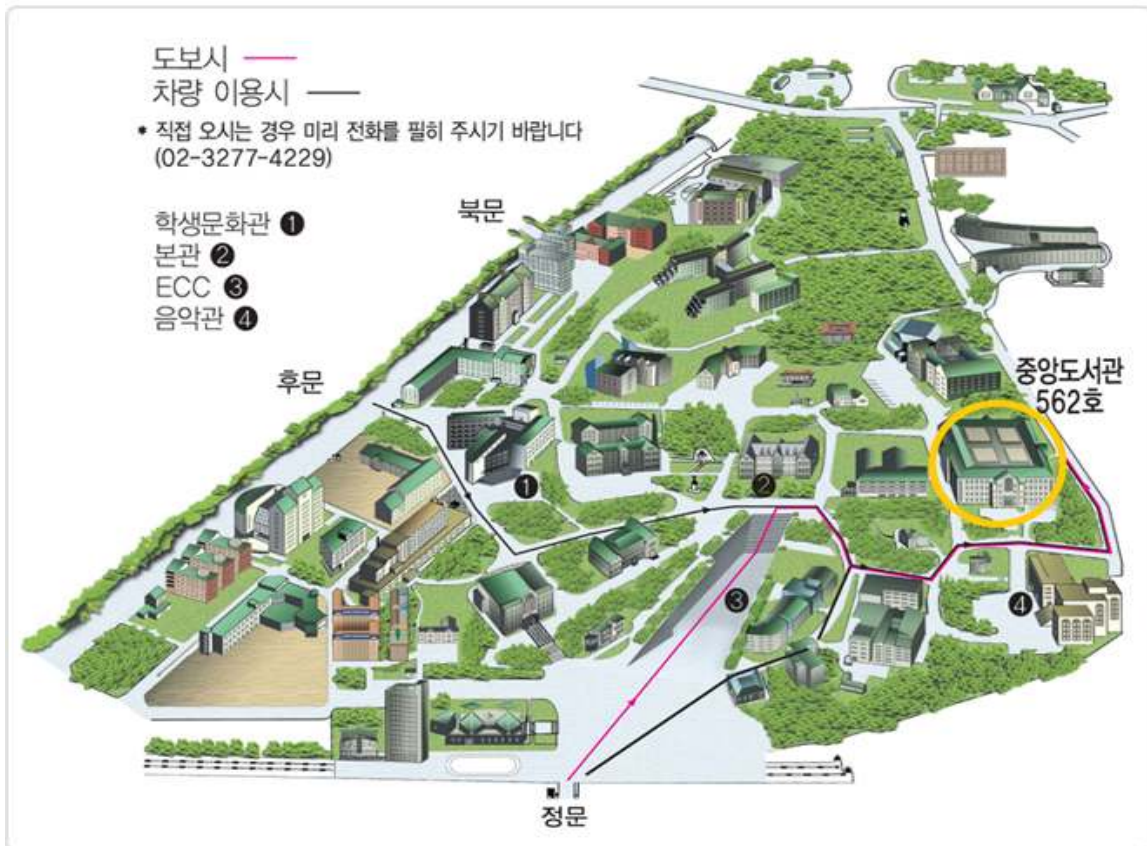
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받아보시고자 하는 자료의 정확한 '제목'과 '저자',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bprc@bprc.re.kr](mailto:bprc@bprc.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560호

전화번호 : 02-3277-4229

이메일 : bprc@bprc.re.k



####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2호선 이대역 하차 3번출구 방면

#### 버스 이용 시

##### 이대역

간선 : 163, 170, 171, 172, 270, 271, 273, 371, 472, 602, 603, 700, 705, 721, 751  
 지선 : 5711, 5712, 5713, 5714, 6716, 7017, 7611, 7712  
 광역 : 1000, 1100, 1200, 9600, 9602, 9706

##### 이화여대후문역

간선 : 161, 370, 470, 601, 708, 750, 751  
 지선 : 6714, 7017, 7736, 7737  
 광역 : 9101, 9600, 9601, 9602, 9713  
 순환 : 7736, 7737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중앙도서관 562호